

경청도 리더십입니다 LISTENING IS ALSO LEADERSHIP By Erenia Mendoza

우리는 빠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깊이 듣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회의나 대화, 심지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할 정도로만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보여 줍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보여지고,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 때 시작됩니다.

We live in a generation that has learned to respond quickly. At the same time, it has forgotten how to listen deeply. In meetings, conversations, and even relationships, we often listen only long enough to prepare our next response. But the Bible shows us a different way. It teaches that true influence does not begin when we speak. It begins when we make someone feel seen, understood, and valued.

신약성경 야고보서 1 장 19 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예수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의 원리를 끊임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New Testament, James 1:19 admonishes that,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Jesus practiced this principle of active listening constantly. Perhaps one of the most powerful marks of His leadership was the way He listened to people. When we look at the life of Christ, we realize that He not only taught these principles – He lived them. Here are some examples:

말을 끊지 않고 듣기. 누가복음 24 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낙심하고 실망한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길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대답하시기 전에 그들이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도록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반대로 행동합니까? 상대의 말을 끊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거나, 모든 것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Listening Without Interrupting. We read in Luke 24 that on the road to Emmaus the disciples were walking, feeling frustrated and disappointed after the crucifixion. The risen Jesus approached them and asked: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as you walk along?*” He already knew exactly what had happened but patiently allowed them to pour out their hearts before responding. How often do we do the opposite? We interrupt, jump to conclusions, or try to solve everything too quickly.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 장에 기록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정죄하거나 준비된 말을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무시당하고 배척받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예의상 듣고 있는지 알아차리지만, 반대로 우리의 관심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도 알아차립니다.

Showing Genuine Interest. When Jesus met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recounted in John 4, He did not begin the conversation with condemnation or ready-made speeches. He started by creating connection. In a culture in which that woman was ignored and rejected, Jesus made her feel important. He saw her spiritual thirst even before confronting her wounds. People can tell when we are listening merely out of politeness – but they can also tell when there is genuine love in our attention.

답을 단정하기 전에 질문하기. 맹인 바디매오는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46-52)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직접 물으셨습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필요를 미리 단정합니다.

Asking Questions Before Assuming Answers. A blind man, Bartimaeus, cried out by the roadside,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ark 10:46–52). Jesus stopped and aske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lready knew the answer, yet He still chose to ask. Listening is also about giving dignity to others. Many times, we assume people’s needs without truly understanding their pain.

말 너머의 것을 듣기. 예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까지 알아차리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숨겨진 두려움,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좌절을 보셨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정과 침묵, 표정,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일터와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숙한 리더십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줄 압니다.

Listening Beyond Words. Jesus often perceived what no one else could hear. He saw fear hidden in Peter, shame in the Samaritan woman, and frustration in the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Active listening is not just about hearing words. It is about perceiving emotions, silences, expressions, and invisible needs. At work, at home, and in relationships, people rarely reveal everything explicitly. Mature leadership learns to listen even to what is left unsaid.

은혜와 진리로 반응하기. 예수님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청은 언제나 돌봄과 방향 제시, 그리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들으신 후 격려하셨고, 필요할 때는 바로잡으셨으며, 치유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단지 소통의 부족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함께해 주는 사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 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는 아주 단순합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듣고, 우리의 온전한 관심이라는 조건 없는 선물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Responding With Grace and Truth. Jesus never listened merely to collect information. His listening always produced care, direction, and transformation. After listening, He encouraged, confronted, when necessary, healed, taught, and restored. Perhaps the problem today is not only lack of communication. Perhaps it is the lack of presence. We are surrounded by people wanting to be noticed, longing for someone who will truly listen to them. One of the greatest ways to represent Christ in our lives is simply this: stop, look, listen, and love people through the unconditional gift of our attention.

경청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말없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해 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Listening requires humility. It requires patience. It requires genuine interest. And that looks a lot like Christ. Attentive listening is a silent way of loving. Influential people are not always the ones who speak the most, but often the ones who make others feel important.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단순히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earing and listening? In your mind, is there a difference? Explain your answer.

2. 왜 오늘날 21 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나요?

Why do you think it is so common in our 21st century world for people to struggle when it comes to sincerely listening to others?

3.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적극적이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Does someone you know come to mind who seems skilled at active, attentive listening? What is it about this person that makes him or her stand out as someone who genuinely knows how to listen to other people?

4. 이번 월요만나에서 다룬 경청의 여러 영역 가운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Of the various areas that involve listening, as discussed in this Monday Manna, is there one that seems more important than others? Which of them do you think is an area where you personally could use some improvement?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10:8, 10:19, 11:13, 12:23, 15:23, 16:21, 17:27-28, 18:13, 20:12, 25:12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Proverbs 10:8, 10:19, 11:13, 12:23, 15:23, 16:21, 17:27-28, 18:13, 20:12, 25:12

- (잠언 10: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 (잠언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 (잠언 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 (잠언 12:23)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 (잠언 15: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 (잠언 16: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 (잠언 17:27-28)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 (잠언 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잠언 20: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 (잠언 25: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에 참여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끼어들 기회를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It never hurts to do an honest self-evaluation. During conversations, or while participating in meetings, try to take a step back and observe yourself. Are you genuinely listening to the other people, or are you impatiently waiting for an opportunity to interject your thoughts?

신뢰하는 친구나 책임을 나누는 동역자, 멘토, 또는 함께하고 있는 CBMC 모임의 동역자들에게 의견을 구하십시오.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인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여러분과 대화할 때 자신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보십시오.

Enlist the perspectives of others – trusted friends, an accountability partner, a mentor, or a CBMC group you are a part of. Even someone who reports to you at work. Ask them how they would rate you as a listener, if they feel genuinely listened to when you are interacting with them.